



정일영 국회의원, 2023 의정활동 보고회

“송도의 삶을 챙기겠습니다!”

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
로 선정된 인천광역시 연수를 정일
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저
녁 7시부터 9시까지 약 2시간 동안
송도컨벤시아 118호에서 2023년 의
정활동 보고회는 주민 등 지역 인사
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.

정일영 의원은 인천 송도의 삶을
챙기겠다는 것이 핵심 키워드로 현
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된 성
과와 앞으로 지역 발전에서 빼놓을
수 없는 사업들을 나열하며 초심을
잃지 않고 정일영이 달린다고 강조했
다. 이날 “정일영이 시작하고 정일영
이 매듭을 짓겠다”며 총 8가지의 사
업을 나열했다. △GTX- 노선을 24
년 초 착공하고 30년 개통을 추진
△2022년 착공한 연세세브란스병원
을 26년 완공예정 △송도국제도시
도서관 23년 착공과 25년 완공예정
△아암지하차도 25년 하반기 준공예
정 △아암물류단지 25년 하반기 준
공예정 △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31
년 준공예정 △과밀학급 및 원거리
통학 개선 △수도권 제2순환고속도
로 25년 착공과 32년 완공 예정을

보고했다.

자신은 국토부에서 공직생활과
끝으로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역임
하면서 “국회로 들어가 초선 몇 개월
은 과거 공직생활과 달랐다”고 했다.
공조직에서는 무슨 현안을 지시하거
나 실행하는데 보고체계를 통해 즉
시 시행되거나 추진이 됐지만, 국회
는 차이가 컸다고 밝혔다.

이와함께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
도 챙겨야 하지만 더 나아가 국민의
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업
무를 챙겨야 한다고 했다. 그러면서
국토부 2년 의정활동과 현재 산자
부·중소벤처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
다. 특히 우리 송도는 대기업 등 많은
기업이 입주해 있다. 또 연수와 맞물
린 남동공단에는 중소기업들이 즐비
하여 국회 의정활동에서 촘촘히 챙
기고자 노력했던 비하인드도 밝혔
다. 뿌리산업도 정착될 수 있도록 협
업이 있었다고 말했다.

교통 문제도 더 빠른 GTX- 노선
과 제2순환고속도로는 전문가들과
머리를 맞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편
의성도 역설했는데 M버스 운행은

교통망 해결의 기간이 길어 확충을
위해 최선을 다했다. 국토부에는 자
신의 후배들이 차관부터 있다는 인
프라도 공개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
다는 것이다.

교육 문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
과밀현상이 뚜렷해 학교 부족을 발
로 뛰며 해결하고 있다. 2023년 10
월 해양3고, 해양2중, 교육부 공투
심에 통과했다. 또 지난해 7월 첨단
1고, 아라3중은 교육부 중투심 통과
로 연수구 단일학군 조성은 24년 적
용과 총 7개의 학교 신설이 달성됐
다. 특히, 학교 증축 등 정일영은 21
대 등원 2주만에 과밀학급 해결을
위한 1호 법안 발의로 과밀현상을
해소하기 위해 ‘송도국제도시 개발이
익을 교육환경 개선에 이용된다’고
했다.

인천경제자유구역 ‘오롯이’ 주민의
복지와 산업발전을 위해 개발되어야
한다. 지지부진했던 세브란스 병원
에 해법도 내놓았다. 약 800병상 규
모는 26년 완공 예정으로 이제 순항
하고 있다는 전언과 이익 배분을 주
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투자가



정일영 의원이 2023 의정활동 의정보고회 모습

이뤄지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.

롯데몰에 대해서는 지지리도 말
을 안 듣는 기업이다. 더 이상에 사
업이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구
의원으로서 챙겨야 할 문제로서 정
일영이 눈으로 직접보고 발로 뛰어
미개발부지가 지연되지 않도록 복리
증진을 위해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
는 것,

더불어 R2, B1, B2 등 8·9공구
완충녹지도 조속 완공을 위한 해수
부 및 경제청을 향해 지속 설득했다.
2024년 공원 상부 공사의 착공을 위
한 예정된 사실도 밝혔다. 정부예산
또한 국비 총 8829억 원을 확보한
성과도 발표했다. 그러면서 21대 국
회 총 474회 출석과 현장방문 간담
회 등 의정활동을 주민께 보고했다.

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민원을 받

는 자리도 가졌다. 한 주민은 “송도
를 신도시라고 명칭할 것이 아니라
국제도시를 분명하게 붙여달라고 주
문했다.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각 기관
등 협의하여 명칭에 대해 협의하겠
다”고 밝혔다. 이어 공원 등 미진한
공사에 대해서도 주민 민원이 제기
됐다. 현장에 직접 민원인과 함께 나
가 살펴보고 약속했다. 앞으로 의정
활동 보고회 유인물을 주민들에게
잘 살펴 달라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.

한편, 인천광역시의회 8대 산업
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
김희철 보좌관의 사회로 진행된 의
정보고회는 지역 주민들이 일일이
소개됐다. 또 뿌리산업 소장과 지역
호남향우회 회장 등 비롯해 시의원
·구의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
다. /최재운 기자

이준석·이낙연 부상은 ‘거대 양당이 싫은 유권자’ 반발

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
의 신당이 가시화되면서 거대 양당이 싫은 국
민과 정당인들이 대거 합류할 것은 기정화 된
실제의 상황이다. 거대 양당이 싫은 유권자들
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치를 떤
다. 반면 국민의힘 또한 윤석열 정부의 아바
타란 소리는 같은 반응으로 신뢰가 약하다.

대한민국 정치는 진영의 논리로 이미 실종
됐다는 증거다. 방송 패널들이 나와 정치를
논해도 양쪽의 진영 논리 의견에 매몰되어 대
변자 소음으로 들린다. 방송 패널들은 진영
이익을 위한 발언을 쏟아낸다. 신당 부상의
무게감을 애써 부인하고 있다. 국민을 팔면서
빅텐트를 평가절하하며 추후 갈라진다고 예
견하고 있다.

반면 이런 말들은 신당 부상에 신경이 쓰인
다고 보면 되겠다. 실제 이삭줍기 등 현역들의
참여는 추후 양당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정치
세력으로 부상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. 어느
정당도 합부로 할 수가 없는 구도가 나오면 과
거 (고)김대중, 김영삼, 김종필의 3김 정치인
들의 정당 맥락과 같은 정치 구도가 나올 것
으로 분석된다.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케
스팅보드 역할은 실제 무게감이 큰 이낙연 총
리가 제격이란 소리다. 이준석 활약은 양당을
곤란하게 만들 것이란 전망이다.

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와 협
력하겠다고 하지만 정치를 잘 아는 이준석은
갈라졌는데 손을 내민다고 잡는다는 것은 현
실적으로 희박하다. 탈당 효과는 끝이고 견제
가 우선이라는 것이 지배적 중론이다.

데스크칼럼



김 양 훈
위원

한동훈 효과는 상승했어도 법조인 부상을
싫어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
다. 또 이재명의 무서움에 고개를 흔드는 국
민이 너무도 많다.

이준석의 그간 행보는 말에 가벼움이 있
었다. 그러나 이낙연의 무거움이 더해지면
달라진다는 것이다. 이 같은 기대감은 판을
흔들 수 있는 전망치가 나온다.

21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 불순물은 극명
하게 나타나 정치가 실종됐다. 이제 걸음마
를 뗀 한동훈의 정치력은 그림은 그럴 뜻하
게 보이고는 있다. 다른 반발은 그런 그림에
속지 않는다는 반대도 크다. 국민은 판을 한
번 뒤엎는 저력을 보여야 정신을 차린다는
의견은 거대하다. 160석이 넘는 이재명 사당
화도 고개를 흔들어 판이 흔들리고 있다고
한다.

이준석·이낙연의 부상은 그래서 더 무서
운 정치 현실이 됐다. 빅텐트는 유권자 표식

을 뭉치지 못하게 하려는 말이 쏟아지고 있
다. 성향이 달라 각자 가라고 국민을 파는 위
선이 보인다. 이 나라는 그간 중도가 거대 양
당에 손을 들어주어 운명을 바꾸었다. 중도가
나라를 지킬 기회가 왔다는 여론은 만만치가
않다. 이준석과 이낙연의 성향은 맞지 않는다는
것은 양당의 논리일 뿐 중도적 국민의 판
단은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.

국민의힘으로 간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이
었다. 입당은 다 정치적 셈법으로 모였다 갈라
지는 것이 정치판이다. 정치인들은 국민보다
이익을 위해 당을 바꾼다고 한다. 정답은 성
향에 맞지 않아도 한다는 것이다. 정당이 만
들어진 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국민을 위해
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. 실행 노선이 지지
를 받는다는 것이 정답이다.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후 민주당
의 모습은 어떠한가. 또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
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눈에 보인다. 수장 의
지에 따라 당 기초가 바뀌었다. 보수의 가치,
진보의 가치를 논하고 있다. 그러나 우파·좌
파의 노선만 있다. 또 중도를 표방해 정치했
던 안철수의 모습은 실종됐다는 평가다.

각 당은 생각이 다른 많은 이들이 있다. 존
중이란 이럴 때 쓰라고 한다. 권력에 취해 존
중은 유실된 지가 오래됐다. 제3 정당의 탄생
은 과거 거울이다. 제3의 정당은 과거의 실패
를 다시 재탕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.

22대 총선은 어떤 방향이든 국민은 거대
양당에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정치 판도는 달
라질 것으로 전망되어 귀추가 주목된다.

강화군 16개마을 상수도로 전환 적극행정으로 안정적 급수 기대

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 강
화군 내 167개소 마을수도시설지역 중 16개
소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완료해 안정적인 수
도 급수를 추진하고 연간 약 2억 원에 달하는
마을수도시설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절
감했다고 밝혔다.

강화군 지역에는 전국 특·광역시 내 기초자
치단체 중 가장 많은 마을수도시설이 있다. 지
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지하수 오
염 우려와 지역 주민 지방상수도 인식 전환 등
으로 인해 2011년부터 배수지 신설 및 주요 송
배수관로 정비 등 시설이 확충되면서 지방상
수도가 점차 보급되고 있으나, 여전히 마을수
도시설이 혼용돼 운영·관리 예산은 증가해 오
고 있다.

이번에 지방상수도로 전환된 지역들은 그동
안 수질이 부적합해 음용 불가 및 마을 수도시
설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수시로 단수가 발생
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으로, 그동안
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관로 매설 구간 사유지
소유주 부동의 등으로 인해 지방상수도 공급
이 지연되고 있었다.

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이
들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방상수도의
장점을 홍보했다. 또 건축물대장이 없는 수용
가는 주민대표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
고, 사유지 부동의의 구간은 토지주를 설득하고
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한 적
극 행정을 펼쳐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
받았다. /문미순 기자